



미추홀

n

|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발행인 | 황영선 | 편집인 | 전미옥, 조덕환, 천명옥, 최성진, 유주희, 김용운, 김주원, 문희 | 주소 | 인천시 남구 염창로 97 | 전화 | 876-8181 | 팩스 | 876-8416 | www.michu.or.kr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제23호 (매월 발행)



함께 만들어 가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남구'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Q.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구민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인천 남구 구민 여러분!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넘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90여명의 남구 공직자 모두는 올해 초심으로 돌아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특히 신뢰와 협동의 가치로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 있어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려고 합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Q. 남구의 2016년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우리 남구의 올해 구정 중점목표는 '교육혁신 정착의 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민관거버넌스, 마을공동체들과 협력해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천 방식으로는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학교에게만 부과하지 않고 지역사회 모든 교육주체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 친구가 되며 관찰자가 되어서 공교육에 대한 공동책임자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지원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연과 사회, 삶속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남구의 비전을 '사

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로 정하고 ▲지례로운 시민 ▲지속 가능한 도시 ▲사회연대 경제 ▲미디어시티를 4대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구청장으로서 진정한 '사회복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A. 진정한 사회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민간이 주체가 된 (가칭)남구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재단은 복지는 물론 교육, 환경, 경제, 문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주도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재단의 운영을 고민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해 6월 '(가칭)남구지역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매달 수시 모임을 통해 남구지역재단 설립 방향을 정하고 주민홍보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남구지역재단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원이 절실했던 이웃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Q. '더 많은 일자리,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한 착한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계층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

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5억 원의 예산으로 56개 사업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남구시설 관리공단과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모니터 활동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및 어르신들의 문화 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을 장려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증진하도록 하고 매년 미용경연대회 및 미처어어쇼를 통해 뷰티산업을 발전시키 우수한 미용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계속적 사업으로 매년 14억 원을 들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남구 또는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 9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3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공시제'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권역별 구인구직센터'를 확대 운영해 상시로 구인구직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Q. 아동 보육시설 확충과 안심하고 말길 수 있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아동복지 정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A. 남구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선입소 순위 가점을 100점에서 200점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7월에는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인천기계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개원해 신단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일시적 긴급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6년부터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기준 1

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어린이집' 또한 1곳에서 2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공립 수준의 우수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시설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5곳이던 민간시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17곳으로 늘었으며 2016년에는 20곳이 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및 이동학대 등 예방 중심의

지도 점검도 2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난해 9월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시행으로 지역 내 252곳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Q. 민선3기, 5기에 이어 6기 구청장으로 구정을 이어오신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소회와 구청장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남구구민 비전을 가지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중심의 복지도시를 이루기 위해 지역에 노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을 위해 2천여억 원의 예산으로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비용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민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노력하

자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을 한 해도

더욱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유주희, 전미옥, 최성진 시민기자〉



남구청장 인터뷰사진

인내의 미덕을 지키자!



구세동거(九世同居)

"과거 중국의 대가족제도에서도 9대가 한집에 산다는 것이 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집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 했을 뿐 아니라 천자(天子)의 존귀한 몸으로 그 집을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부모자식 간 한세대가 한집에서 살기를 기피(忌避)하는 오늘의 시대에서는 상상(想像)조차 하기

광혜원재단 이사장 최용하

힘든 일이다.

천자의 물음에 대하여 그 집의 주인 장공에는 대답대신 참을 인(忍)자를 100자 이상 써서 올렸다고 말했다.

100번 참은 집에 화목의 기운이 있다는 말이다.

즉 백인상중유태화(百忍常中有太和)

인내(忍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사회도 정치인이나 일반시민이 말을 함부로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

드 것이 화를 참지 못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한 지역민으로써 주민들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

듯 간의 화합과 소통이 되는 동네, 나아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의 미덕을 지켜 나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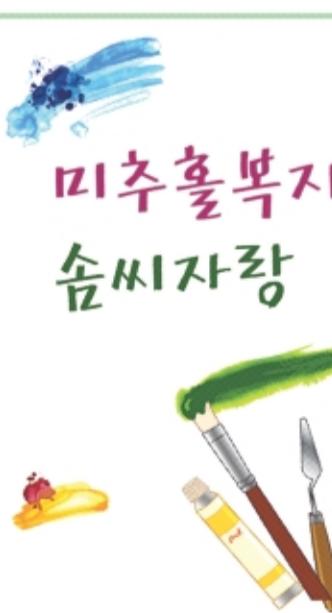
丙申年
九世同居
최용하

最上
忍耐
百忍常有太和
최용하 이사장 작품

든 것이 화를 참지 못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

한다.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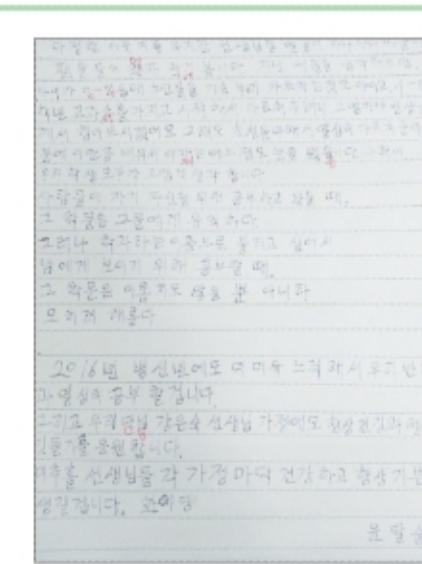
역민으로써 주민들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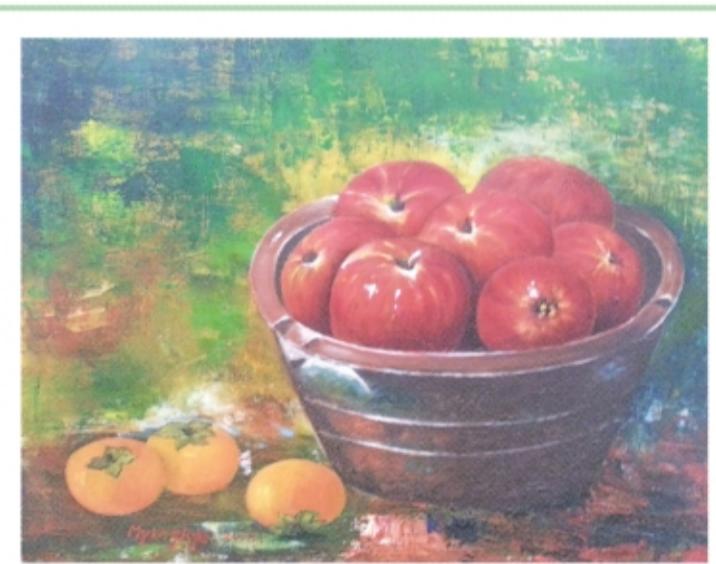
유화교실 김영실 작품



퀼트이야기 김지원 작품



한글반 윤달순 작품



유화교실 최명례 작품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은 여러분의 나눔으로 만들어집니다! ♡

-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자격 :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아름다운 당신!
- ▶ 모집분야 : 재능기부 / 도시락·밀반찬배달 / 재가어르신 안부전화 / 저소득가정·어르신 가정방문 / 장애아동 활동보조 / 시설봉사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자세한 문의는 032) 876-8181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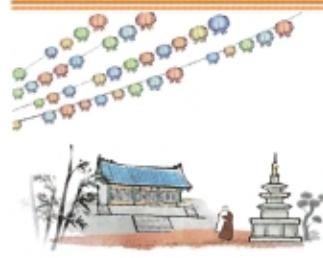


시민기자단 모집안내

♡ 당신의 펜이 이웃을 웃게 합니다! ♡

-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자격 : 필력은 조금 부족해도 열정 넘치는 당신!
- ▶ 활동내용 : 지역소식 알리기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자세한 문의는 032) 876-8181로 부탁드립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소개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연계 – 사례개입 – 위기개정지원)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저소득위기가정을 위해 개인 및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언어/미술치료, 늘푸른교실, 가족교육, 방과후교실운영 등을 향상



지역조직화사업

(복지네트워크구축 – 주민조직화 – 지원개발및관리)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연계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형성하고 조민조직을 육성

교육, 문화사업

(사회교육 – 차치활동,문화복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를 위해 이동, 성인, 어르신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여가프로그램을 진행(노래, 기타, 타구, 요가, 미술실버인형극단, 학창동아리, 컴퓨터동아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인천고 환경동아리 <미추홀그린연구회>

인천 남구 경원대로 804에 자리잡고 있는 인천고등학교(교장 박동배)동아리 미추홀그린연구회(학동아리)가 미추홀축제에서 전시, 발표, 체험 등 활발한 동아리활동과 발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인천전문환경연구회에서 1년에 한번씩 논문집을 발간하는데 작년부터 미추홀그린연구회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스스로 연구한 논문을 제출하고 있다.

Q. 미추홀그린연구회는?

A. 그동안 인천환경공단 환경전문가와 같이 연구했던 조별 과제를 정리하고 교내동아리활동 연구보고서 및 학술소논문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Q. 동아리활동 이후 학생들의 달라진점?

A.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타의적인 의무감으로 참여했지만 동아리활동을 거듭할수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동아리활동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승기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지킴이 역할을 든든히 해 나갈 것이며 연탄봉사활동 및 농촌봉사활동, 녹색나눔장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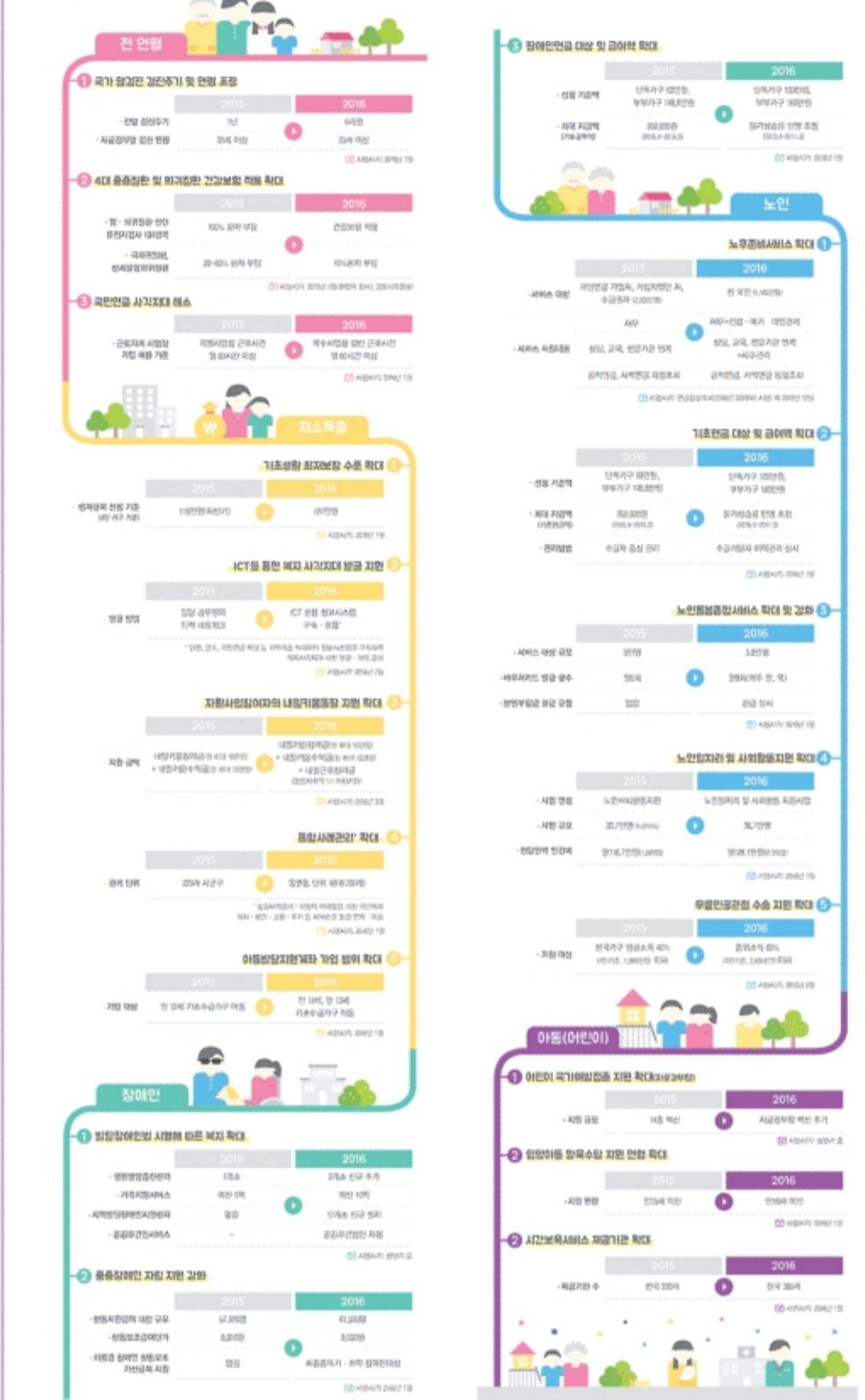
인고 미추홀그린연구회 화이팅!

〈전미옥 시민기자〉

알짜배기 소식통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 사무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사업”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r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 작성자 정책공감

〈스트레스의 심리적 신호〉

- ▶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낸다.
- ▶ 초조할 때가 많고, 인내력이 없다.
- ▶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진정할 수가 없다.
- ▶ 집중이 안되고 기억력이 나빠졌다.
- ▶ 매사에 의심이 많고 맘설인다.
- ▶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
- ▶ 우울하고 쉽게 침울해진다.
- ▶ 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쉽게 포기한다.
- ▶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출처] 2016년 새해 직장인 건강관리,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 작성자 정책공감

〈최성진 시민기자〉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감자탕을 만드는 형제들〉
인천시 남구 주엽로 9(주안동)



〈황금오리〉
인천시 석정로 428(주안동)



〈정자왕갈비〉
인천시 남구 석정로 412(주안동)



〈정주쭈꾸미〉
인천시 남구 주안중로 39(주안동)



〈홍남면옥〉
인천시 남구 주안로 178(주안동)



제물포 도서관의 설립 배경 및 목적

남구의 구립도서관 중 12번째로 개관한 제물포 도서관은 남구의 도서관 관련 교육을 받은 지원봉사자 60여 명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위치 선정부터 마을의 부녀회와 통장님들이 직접 밟고 나서, 제물포역에서 5분 거리에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의4동 새마을금고 6층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지원봉사자 모두가 누구보다도 도서관에 애착을 느끼며 자기 일처럼 마을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도서관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지원, 임시팀장, 총무, 매일 4~5명의 지원봉사자들이 함께 문을 열고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맞이합니다.

10,000여권의 책과 열람석 35개로 다소 작은 규모인 듯 보이지만 이용률은 구립도서관 중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인

영어지식증진과 원어민영어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阶层입니다. 도서관이 지난 9월부터 약간 차게 준비해온 '내 생애 최초의 책과 자서전 쓰기'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책 쓰기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삶을 한편의 글로 완성하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주민 혹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도서관

매년 다독상 시상식을 열어 어린이나 가족별로 이용자와 대출률을 최고 10명 정도 선정하여 시상식을 합니다. 1월 말이면 개관행사를 하는데 책만들기, 가미시바이 그림책 공연, 기념품나누기, 도서기증, 과월호 잡지 무료배포 등 가족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습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주민 참여율 또한 200~300여 명은 된다고 하니 주민참여형 도서관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12월 18일 그동안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한 분들을 중심으로 전자책을 발간하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영어프로그램수업

제물포 도서관의 향후 계획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도맡고 계신 김주한 총무님께서는 도서관의 역할이란 '밀 빠진 둑으로 물 나르기'란 말에 빛대어 "가시적으로는 적지만 물을 나르는 동안 줄줄 흐르는 물이 주변의 식물을 자라게 하고 꽃도 피운다"며 바로 제물포 도서관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내비치셨습니다.

지원봉사 손영란님께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퇴근 후까지 아이를 둘러줄 곳이 없어 막았는데 아이들이 매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부모를 기다려주니 안심이고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보살펴주니 항상 고맙다"라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이렇듯 제물포 도서관은 마을의 지킴이이고 인식처처럼 누구나 편안히 오고가는 곳이 됨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동네에는 제물포 도서관이 있으니 블립없이 마음도 몸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천명옥 시민기자〉

제물포 도서관 도서



전통을 살리자 – 인천도호부청사

인천에서 조선을 느끼다. 남구 도호부청사로 오라!

인천 유형 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도호부청사는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에 위치하고 있다. 문학 경기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인천 도호부청사는 조선 시대에 인천 도호부의 수령이 머물며 행정을 펼쳤던 관아 건물이다. 도호부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로 상급기관인 목과 하급기관인 군·현 사이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또한 은을탈춤 등의 무형문화재 공연, 활쏘기, 고누,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사를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호부청사 홈페이지 (www.dohob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에 도호부가 설치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초기 학자이자 명신인 강희胤이 쓴 『인천부승호기』(仁川府昇號記)에 1424년 이미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일반인들을 위해 문학초등학교 바로 오른쪽에 일정한 부지를 마련하여 도호부청사 건물들을 복원해 놓았다. 관아의 전형적인 배치와 형식에 맞게 동헌과 객사, 아문, 삼문, 종문 등의 건물들이 잘 복원되어 있어



달갈집만들기



투호놀이



달립태우기



떡메치기

벗도 즐기고, 가족과의 즐거운 추억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주희, 최성진 시민기자〉

〈도호부청사 행사안내〉

- ▶ 평일 : 전통놀이행사
- ▶ 대보름, 추석행사 : 별짚태우기, 부럽깨기 등
- ▶ 주말 : 가족체험행사, 전통놀이 등
- ▶ 운영시간 : 10:00~19:00



인천도호부청사 전경

오피니언

노인교육 프로그램... 친구, 건강도 있다



김형수

한국노년교육학회 부회장(노년교육학박사)
인천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자문위원장

신년을 맞으며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인사가 오고갔다. 또 새해 벽두에는 유난히 건강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위 친지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SNS 문자가 폭주했다.

최근 백세시대를 의미하는 '호모 현드레드'라는 용어가 현실화되고 있다. 구십 세에 저 세상에서 데리러 온다고 해도 알아서 간다고 전하는 '백세인생'의 노래가사에 공감하는 시대가 됐다. 장수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욕망은 옛 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스베리아의 라멕 왕은 28,000년을 살았다고 하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드셀라, 이단, 셋, 노아 등 의 인물은 900년 이상의 장수를 누렸다. 프랑스 사람 폴세 데 레온은 청춘의 샘을 발견하고 무병장수했다는 전설이 있다. 청춘의 샘은 젊음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영화 '캐리비너의 해적 : 낚신 조류'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노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18.0년, 여자 22.4년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령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1년 뒤인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지난 2000년에 고령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17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UN이 정한 노인인구국 중에서도 노인인구가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국가사회의 인구구조가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매해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령자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3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고령자의 실상이다. 대체로 노년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감,

신체·심리적 변화 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노년기의 문제 중에서도 노인 빈곤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물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이후, 매우 미세한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노인 2명 중 1명은 여전히 월 소득 60만원 아래의 가난한 노인으로 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현재의 20만원 수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좀 더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무연금 저연금의 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가 당면한 고령화의 과제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생의 의미를 담을 여가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준비 없이는 길어진 노년의 축복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일과 돈, 건강은 노년의 화두이고 인생의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 격차와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의 요소도 중요한 노년의 활력소가 돼야 한다.

생활 주변 밟을 품을 팔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주민자치센터, 노인교실, 종교시설, 대학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들을 만날 수 있다. 그 평생학습, 노년교육 프로그램에 친구가 있고 건강도 있다.

문화교육 한글반 수강후기



수강생후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한글반 문답순

2015년 을미년 한해는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다
정한 미추홀복지관 선생
님들과 함께 공부해왔던

글동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펜

을 들어 몇 자 적어 보려합니다.

저는 미추홀복지관 한글반에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늙깎이 할머니 학생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 생각해 보면, 나이가 70~80대 노인들을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4,5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려니 선생님들께서 그 얼마나 담담하고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가르쳐준 여러분에 이제는 이 말씀이나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한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가 선생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풀어왔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을 체워주시고, 공부에 대한 힘을 풀어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색인물취재



81세, 남들보다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공감교육지원센터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있다. 81세 늙깎이 학생 방월식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방월식어신

A. 혼자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울증도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지인의 소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강좌를 들게 되었습니다.

Q. 공부를 시작한 뒤 가장 달라진 점은?

A. 제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 끊고 전보다 더 좋아지고, 우울증도 확실히 나았어요. 배움에는 끝도 있지만 시작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파벳도 모르던 제가 이제 단어를 읽고 쉬운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해서 중학교정정고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안내

대상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장소	교육일정	수강료
아동	경제놀이터	10명	3-1강의실	2·4주 수요일 / 16:00-17:30	무료
	유화교실	6명	유화교실	토요일 / 10:00-12:00	무료
	종이접기&클레이아트	20명 20명	3-1강의실	취미반 - 화요일 / 14:30-15:30 자격증반 - 화요일 / 15:30-16:30	월 2만5천원 (재료비포함)
	방과후 아동교실	0명	방과후교실	월요일 - 금요일 학기중 14:00-18:00 / 방학중 11:00~18:00	월 8만원 (수급 및 저소득층은 무료 및 감면)
성인	요가 1	20명	소강당	월요일 - 금요일 / 09:00-10:00	월 2만5천원
	요가 2	25명	소강당	화요일 - 금요일 / 10:00-11:00	월 2만원
	노래교실	50명	대회의실	금요일 / 13:00-14:30	2개월 1만원
	피아노 1교실	9명	3-2강의실	화요일 / 13:30-15:30	월 2만원
	피아노 2교실	9명	3-2강의실	목요일 / 14:00-16:00	월 2만원
	라인댄스	20명	소강당	월요일, 금요일 / 11:00-12:00	월 1만5천원
	웃음레크레이션	20명	소강당	수요일, 금요일 / 13:00-14:00	월 1만원
	지끈공예(자격증)	20명	3-1강의실	화요일 / 16:30-17:30	월 2만원 (재료비별도)
	토탈공예(자격증)	20명	3-1강의실	화요일 / 13:00-14:00	월 2만원 (재료비별도)
	퀼트교실	6명	1-1 강의실	월요일 / 10:00-12:00	무료
	유화교실	6명	유화교실	목요일 / 10:00-12:00	무료
	기타교실	20명	3-2강의실	수요일 / 10:00-11:00	무료
	오카리나	20명	3-1강의실	수요일 / 14:00-15:00	무료
	도자기공예	10명	공예실	주2회	재료비별도
	한글교실	20명	3-1강의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09:00-11:00	
	컴퓨터 멀티 (블로그, 인터넷, 쇼핑)	20명	컴퓨터실	화요일, 목요일 / 10:00-11:30	
	컴퓨터 활용 (한글, 엑셀, 스마트폰)	20명	컴퓨터실	화요일, 목요일 / 11:30-13:00	
	컴퓨터 기초 (기초, 한글2010·인터넷)	20명	컴퓨터실	화요일, 목요일 / 14:00-15:30	
노인	스마트폰 교육	15명	컴퓨터실	방학프로그램 1월/6월 중 진행	
	탁구 초급 / 중급	20명	대회의실	월요일, 화요일 / 10:00-12:00	
	생활체조	20명	소강당	화요일, 목요일 / 11:00-12:00	
	피아노초급	9명	3-2강의실	화요일 / 15:30-17:30	
	합창 동아리	30명	3-2강의실	화요일, 금요일 / 11:00-12:00	
	서예동아리	20명	3-2강의실	월요일, 목요일 / 09:00-11:00	
	기타동아리	20명	3-2강의실	수요일 / 11:00-12:00	
	컴퓨터동아리	20명	컴퓨터실	A반 월 13:00-17:00 / B반 수 13:00-17:00 C반 월 09:00-12:00 / D반 금 13:00-17:00	

무료
※ 주민등록 초본1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소개합니다.

자원봉사자

가한범	석원엽	손경수	손창수	신제희	심서온	정다빈	최승규
김미선	오형석	유경해	유혜민	윤일미	이가은	길무연	최유빈
백지현	이문철	이성현	이승기	이유정	이준호	김인숙	홍다희
양진수	이화자	임서연	장우순	전숙영	박은희	노오란	황경희
이기동	고보경	권영자	김경순	김영후	신한나	백종하	최혜민
이현술	김보민	김성규	김승만	김현주	윤정훈	이윤환	한세진
강국진	김종민	김지영	박성훈	이아라	이율황	전야연	채기철
김미영	문지호	박근나	송기영	장우진	김윤재	나종민	최상규
김재숙	김재현	손민혁	김경옥	김남형	박현원	이근호	이하영
류귀선	이미경	유시호	김승연	김예순	안대현	정덕현	정승훈
변형석	이미경	이성희	김지현	김형국	이경옥	정명식	최은지
양채린	이효임	임재찬	박순희	박종현	이지수	정명숙	강봉석
이길자	고상훈	권오한	송현주	신현숙	전현서	정효진	김민진
이해정	김복동	김성은	윤금미	윤지은	김동연	조수빈	최호영
강도영	김주용	김지현	김춘식	이은구	김운철	조안서	한숙희
김민경	문형조	박금자	박순희	전영재	남민우	조이찬	홍다원
김재현	선원규	손수진	송현주	김다슬	박현민	조제인	황문화
류동근	유준민	유육자	윤금미	김예온	안세현	조제인	천근호
변희숙	이병선	이수빈	이연지	김혜린	이경옥	정민복	최상훈
양하경	이희수	장근욱	장재호	박주홍	이지수	정용복	최여진
이나영	고영현	권유진	김경자	신현지	전현옥	정현식	최종호
이현순	김봉수	김성현	김양식	윤진형	김동연	조가현	최희진
강미옥	김민성	김지현	김태연	이은영	김은미	조수아	한양호
김민성	김문희	박란자	박슬기	장정희	남윤아	조양숙	홍성숙
김정규	김정숙	손여연	신민교	김경희	박호선	조재범	황미정
류사랑	류화정	왕덕균	윤미자	김연옥	안정환	주순분	최민주
서슬기	이보람	이수성	이영순	김태환	이관학	정성욱	최소영
엄복희	이희수	장문선	장정희	박승일	정인학	정인학	최연석
이다오	고희정	권현민	김제희	신유정	전유빈	정가현	최지연
이현정	김상문	김성훈	김태환	박준규	김동준	조기정	편경준
강민건	김준수	김진경	박승일	신현주	김은상	조준금	하대민
김민성	민체원	박민아	신수정	윤혜정	남혜정	조운주	홍영자
김정빈	설미경	손영인	윤미진	김단비	김영준	조점훈	황민영
류하림	류하림	우수빈	이유진	김용빈	안정은	주영민	천혜성
서지은	이상철	이수인	이영은	김연지	이교환	정수빈	최순이
오성택	이상현	정성빈	장준혁	김효정	이창배	정지윤	최원주
이덕근	곽경은	김가현	김규혁	박준영	정광선	정현지	최현영
이형우	김상인	김소현	김연지	신혜자	김명군	조현국	하순천
김인자	김준일	김진택	김해주	윤혜진	김이중	조순정	형성수
노지원	노민초	박병하	박연희	윤혈중	노금임	조은주	총채립
서진구	서진구	손운진	신유빈	김덕구	배수현	조진솔	활수연
오세희	오세희	원경란	윤아현	김우진	안효열	지경애	최민국
이도형	이도형	이수정	이옥순	김효진	이규삼	정순자	정유경
이혜민	이혜민	인총희	장하나	박지원	이창현	정천명	최한빈
강성우	강성우	구연수	김간기	신효승	정국희	정혜선	한광오
김민	김석현	김석현	김금용	이가은	김명봉	조명홍	조승아
김조영	김준혁	김준혁	김영란	이주형	김인숙	조은희	홍경식
마예림	박건우	박상은	김현숙	장혜진	노성현	조하늘	황요셉
서현숙	서현숙	소다미	박유나	김정수	백승훈	이규홍	김정숙
오시영	오시영	유건룡	손정은	김기정	김원기	조나윤	류호중
이명식	이명식	이수창	신재현	김영일	김희자	진다슬	최민자
이숙주	이숙주	임도원	유현무	김현우	박지현	진다슬	최민자
이홍우	이홍우	구윤진	윤여지	박윤상			
강준형	김병길	김선아	김준종	김철훈			
김병길	김지영	김지영	김철훈	박성진			
문지현							

자원봉사자명단에 오기 및 누락된 신분들은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 032) 876-8181 김주원 사회복지사

개인 후원자

강연주	김상우	조정훈	김호년	김재일	최영민	박영규	홍희자	유부자
강정식	김선영	채경희	나지현	장진설	박준순	박준범	김경진	유설희
고경희	김정숙	최성규	노연희	정금성	김인숙	박창희	이도선	윤기천
고해열	김아름	최성랑	도경옥	정영희	김인숙	박창희	이봉순	이도선
권순영	김영일	안동진	류영수	최영희	김인숙			